

佛 대선 사르코지·루아얄 결선 진출

22일 실시된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 우파의 니콜라 사르코지(52)와 좌파의 세골렌 루아얄(53)이 각각 1, 2위를 기록해 5월 6일 실시될 결선투표에 진출했다.

이에 따라 올해 프랑스 대선전은 좌우 이념 노선 및 남녀 후보의 한판 대결로 압축됐고, 누가 최종 승자가 되는 50대 전후 세대의 집권으로 정치 세대교체가 이뤄지게 됐다.

내무부의 최종 개표 결과에 따르면 12명의 후보 중 사르코지가 31.11%, 루아얄이 25.84%의 득표율로 1, 2위를 기록, 나란히 결선에 올랐다. 대선 규정에 따르면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두 후보가 결선을 치른다.

반면 중도 후보 프랑수아 바이루는 18.5%, 극우 후보 장-마리 르 펜은

1차투표서 31.11%, 25.84% 득표 1·2위

내달 6일 결선투표...좌우·남녀 대결 예고

탈락한 좌파후보 5명 "루아얄 지지" 선언

10.5%에 각각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1차 투표의 투표율은 84.6%를 기록, 이번 대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사르코지는 "오늘 투표 결과는 프랑스 민주의 승리다. 루아얄이 2위를 기록한 점은 이념과 프로젝트, 가치 시스템, 정치 개념 사이의 논쟁을 바라는 유권자의 희망을 나타냈다"면서 자신을 1위로 선택함으로써 프랑

스가 스스로를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루아얄은 "야만성 없이 프랑스를 개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주식 시장에 대한 인간 가치의 승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모이고 촉구한다"며 좌파 이념의 우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5월 6일 결선에서 누가 이기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태어난 전후 세대가 최초로 프랑스 대

통령에 오르게 된다.

만약 루아얄이 최종 승리할 경우, 프랑스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한다는 점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다.

한때 돌풍을 일으켰던 바이루와, 2002년 결선 진출의 재연을 노렸던 르 펜이 1차 투표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둬서 프랑스 유권자가 새로운 정치 세력 보다는 전통적인 좌우 양대 정치세력을 택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이날 1차 투표에서 소수의 지지를 얻는데 그친 좌파 계열 후보 5명은 결선 투표에서 우파의 사르코지를 떨어뜨리기 위해 루아얄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이들 5명이 얻은 표는 전체의 약 10%를 차지한다. /파리=연합뉴스



버지니아공대 총기참사에 따른 휴교령으로 대학을 떠나야 했던 학생들이 강의 재개를 하루 앞둔 22일 기숙사로 속속 돌아오고 있다. /블랙스버그=연합뉴스

“분노와 슬픔 넘어 상처 치유로”

■참사 일주일...버지니아공대는

버지니아공대가 23일 오전 '침묵 추도식'을 연 뒤 곧바로 수업을 재개기로 하는 등 총격사건의 악몽을 딛고 치유·회합을 위해 적극 나서면서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다.

총기사건 직후 캠퍼스를 떠났던 학생들도 속속 돌아오고 있으며, 희생자들의 대한 장례식도 가족과 동료 교수, 학생들의 오열 속에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고 있다.

학생들 속속 귀환 23일 수업 재개

◇학생들 속속 귀환=학교측이 총기참사의 충격을 극복하고 교내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가운데 학생들도 속속 학교 기숙사로 모여들고 있다.

이는 학교측이 23일부터 수업재개 방침을 밝히면서 교무처장 명의의 이메일을 통해 "학생들은 남은 학사일정 등을 위해 수업에 빠짐없이 참석해달라"고 부탁한 데 따른 것이다.

◇희생자 추모 발길 '복직'=참사현장인 노리스홀(공학관) 앞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 격인 추모소에는 휴일인 22일에도 이 대학 동문들과 예배를 마치고 가족 단위로 참사 희생자들을 찾으려는 추모 발길이 끊이

지 않았다.

이날 추모소에는 여전히 장미와 국화 등 조화(卍花)와 촛불, 생조지, 인형 등 각종 기념품 등이 가득 메워져있었지만, 추도 메시지는 '렛츠 고 호키(Hokie·버지니아공대 상징물)' 등 슬픔과 애도보다는 치유와 화합, 미래에 맞춰져 있었다.

추모발길 복직...치유·회합 한마음

◇희생자 장례식 이어져=아직 공식 수사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참사 희생자들의 시신이 가족들에게 모두 넘겨져 가운데 희생자들의 장례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상당수 유가족들은 시신을 넘겨받아 고향으로 내려갔으며, 희생자 고향에서 추모예배와 함께 개별적으로 조촐하게 장례식을 치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이스라엘 중부도시 란나나에서 나치의 대학살을 모면한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였다가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리비우 리브레스쿠 교수의 장례식이 전통적인 유대인 방식으로 거행됐다.

◇지역사회도 치유·회합 나서=21일 블랙스버그에서 백인과 흑인, 한국인 목자들이 공동 참여해 총기참사로 희생된 젊은 학생들의 명복을 기원하는 추모예배를 열어 눈길을 모았다. /블랙스버그=연합뉴스

강력한 치안 정책·과감한 개혁 주장

■사르코지는

22일 프랑스 대선 1차투표 뒤 출구조사 발표에서 결선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난 우파 후보 사르코지(52)는 2002년 내무장관 취임 뒤 강력한 치안정책과 카리스마 넘치는 언행으로 지지세를 넓혀가며 유력 주자로 떠오른 스타 정치인이다.

헝가리 이민자 2세인 그는 28세 때인 1983년 파리 교외 바이-쉬르-센의 시장으로 당선됐고 1990년대 초 에두아르 발리뒤르 총리 내각에서 예산장관 등에 기용되며 급성장했다.

그는 대부분의 동료 정치인과는 달리 엘리트 양성학교인 그랑제콜을 졸업하지 않았다. 그는 일반 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며 집권 우파 정당의 당원으로서 그의 정치 인생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재무 장관을 거쳐 2005년 6월 내무장관직에 복귀한 그는 강력한 치안 유지 정책과 과감한 개혁을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높은 지지도를 유지해왔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지도 선두를 고수했다.

전통적 가족가치 수호·아동보호 앞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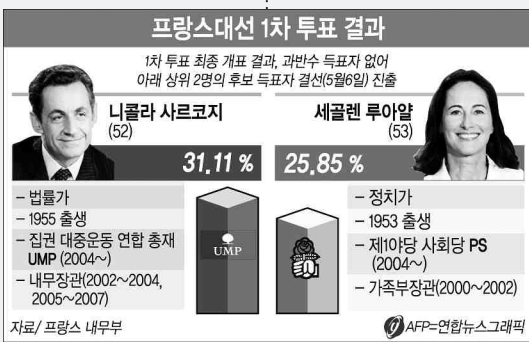
■루아얄은

22일 프랑스 대선 1차투표에서 결선에 오른 것으로 출구조사에서 나타난 사회당의 루아얄(53)은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의 사회당 정권 때 정계에 입문한 전통 엘리트 코스를 거친 여성 정치인이다.

그는 미테랑 전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 1992년 이래 가족 장관과 환경 장관을 역임하며 전통적인 가족 가치 수호와 아동 보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가족 장관 시절 학교 폭력과 아동 포르노를 적결에서 업적을 남겼고 남성 출산 휴가를 도입하는 업적을 남겼다. 그는 2004년 푸아투-사랑트 지방 의회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2007년 대권과 첫 여성 대통령을 꿈꾸는 주요 정치적 인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그는 ENA 동기인 올랑드 사회당 제1서기와 함께 정식 결혼이 아닌 파트너 형태로 살며 4자녀를 키우고 있다. 개인적인 능력에 세련된 외모까지 갖췄고 4자녀의 어머니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정치적으로도 성공한 점이 대중의 호감을 사고 있다. /파리=연합뉴스



日 초·중학생 오늘 43년만에 학력테스트

일본의 초등학교 6년생과 중학교 3년생 약 240만명 전원을 대상으로 한 전국학력테스트가 24일 일제히 실시된다.

학교별로 실시되는 이번 테스트는 '교과조사'와 생활습관 및 학습환경을 묻는 '설문 조사' 등 2종류로 나눠 치러진다.

학년 전원이 치르는 학력테스트로는 43년만의 부활이다. 문부과학성은 학교의 서열화와 경

쟁을 부추기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학력 경향을 보여주는 결과만을 공표하기로 했다.

일본의 학력테스트는 이전 문부성이 1956년부터 초·중·고생의 5~10%를 추출하거나 중 2.3년생의 경우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도 했으나 학교와 지역간 경쟁이 심화돼 '학력 공쿠르'가 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1966년 폐지됐었다. /도쿄=연합뉴스

“美 총기 사망자 하루평균 81명”

총기에 의한 살해나 자살, 사고(경찰의 합법적 총기 대응 포함) 등으로 숨지는 미국인이 하루 평균 81명에 달한다고 뉴욕타임스가 22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 버지니아공대 총격참사가 한 사건에 의한 희생자 규모로는 엄청나지만 미국에서는 매일 수십 명이 총기에 의해 사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다뤘다. /뉴욕=연합뉴스

이에 관한 가장 최근의 통계는 2004년의 것으로, 미국 질병통제방지센터(CDC)에 따르면 2004년 미국에서 총기에 의한 사망자 수는 2만9천569명에 달했다.

또한 총기에 의한 부상자 수는 6만4천389명에 달해 하루 평균 176명 꼴이었다.

연령별 하루 평균 총기 사망자 수는 40세 이상이 39명, 26~39세가 21명, 18~25세가 17명, 17세 이하의 4명 가량이다.

아시아계의 총기 사망자 수는 388명이었다. /뉴욕=연합뉴스

美 의회, 총기구입자격 강화 법안 발의

연방·주 관련법안 통합 단일화...주내 처리될 듯

버지니아 공대(버지니아텍) 총기참사건을 계기로 미국내 총기규제 강화에 대한 논란이 재연되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가 22일 총기구입 자격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 이번 주 중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야계의 총기 사망자 수는 388명이었다. /뉴욕=연합뉴스

총기구입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법을 통해 현재 연방법과 주법이 상이한 규정을 갖고 있어 실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법 간격'을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관련법은 범죄나 정신질환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총기구입을 규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에 따

라 자격요건이나 대기기간이 다르거나 규제해당자에 대한 각종 신상 정보도 통합되지 않아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연방 및 주 관련법안을 통합, 단일화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통보이무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주에 대해서는 재정적 제재 조치를 과하도록하고 있다.

패트릭 리 상원법사위원장은 버지니아 사건을 계기로 총기규제와 관련한 의회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배출

노동부 인정 직업능력훈련기관

5월 1일 첫진도 개강

고용보험재직근로자 수강료 환급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주택관리사

제8회 주택관리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196명 중 본인출신 143명 합격!

본원 227-8003 (구도청 앞 전일빌딩 뒤편)

첨단점 971-0002 (빅마트 칠단점 옆 광주은행 4F)

희소식 수료 **한빛고시**

기장주부 실업자 지방여성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수강료 환급

출석률 80%이상시 수업료의 50%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무관※

전국 최강의 강사진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유명 출판사 저자 직강※

탁월한 합격 시스템

●출결관리 ●학습 성취도에 따른 개별 분석지도

●지습실, 사물함 무료 사용

한빛 1위 **A+ 현대고시학원** 236-2467~8 (동부경찰서 옆)

=46년 전통의 “無等”은 강의 “第一” 합격 “最多”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7월 9일 공무원 완전 대비

기술직렬 ... 행정직렬 ... 공안직렬

시험 ■서울 지방직: 7월 8일 시행 1723명 ■전남: 6월 23일 161명

■전북 지방직: 제2회 9급 행정, 사회복지·사서: 9월 8일 131명 공채

■전남지방 7·9급 행정직 하반기 시험 시행 예정

※후반기 각 시·도별 9급 교육행정직 9월~11월 시행, 합격응이※

개강: 5월 1일 주·야(휴일)반 모집

★장기미반: 주간 2개월 야간 3개월 완성

★핵심이론+문제풀이반 4주완성반

고시명 **무등고시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편 (충안초교 후문)

☎ 222-4560

면학분위기 가장 좋은 학원 / 1교수 1과목 전문강사진 / 주말보강없이 2개월 책임 완성

9월 9일 경찰 시험대비 합격특강

전/의경 폐지확정

2008년부터 채용규모 5,000명 이상 증원(예상)

지금 기회!

개강 5월 1일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월 12일(토) 16시(현직전문가)]

후 서울경찰전문학원 북구청 맞은편 (062) 251-7959

2007년 국가직, 지방직 시험합격= 한빛에 있다! www.hanbitgosi.co.kr

7급 공무원

개설직종: 행정직, 교육행정직, 사무직, 법원직, 경찰직, 사회복지, 군무원, 교정직, 농림직, 전선직, 보건직, 출입관리직, 기술직

이론반 (2개월 완성) 서울시 문제풀이 (1개월 완성)

6월 22일 안양시 대비

총합격 420~620

2007년 상반기에 9급, 9급행정직, 9급교육행정, 9급사무, 9급법원, 9급군무원, 9급교정, 9급농림, 9급보건, 9급출입관리, 9급기술직

한빛공무원학원

●경기도(4월 28일)수송차량 예약접수

●인수기간: 3월 12일 ~ 4월 25일 - 원복(비: 2명)

●서울시(7월 8일)시험차량 예약접수

개강 5월 1일 (휴/역수반 매일 첫진도 개강)

전남대 후문 북구청 건너편 ☎ 234-0234